

인도네시아에서 보내드리는 8 월 선교편지

AUG 10, 2016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8-20)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

참으로 정신없이 지냈던 7월이었습니다. 특별히 연이은 선교팀들과 함께 숨바섬 사역을 하면서 가장 분주하고 바빴던 7월이었으며, 또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 주신 한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 드리며 또한 사랑과 섬김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선교팀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무럭 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호주 하트비트교회 청년들과 숨바섬 사역을 하였습니다.

호주 하트비트교회 청년들과 함께 10일간 14군데 마을을 방문하면서 예배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금번에는 신혼여행대신 숨바섬 선교여행을 온 사위, 딸이 함께하여, 더욱 은혜가 있었으며, 새로운 마을 영혼 4명에게 세례도 주고, 각 마을 영혼들의 발을 씻기며 복음팔찌 및 찬양, 위심으로 마음껏 복음의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2.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오룬 선교팀들과 함께 숨바섬 사역을 하였습니다.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오룬선교팀 70명과 함께 동숨바 6개마을과 4개 초등학교에서 의료사역, 어린이사역, 문화사역, 벽화사역, 구강보건사역, 기도사역, 이미용사역을 마치고 이제 발리로 나왔습니다. 한번도 외국인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서도, 교회가 전혀 없는 마을에서도, 물이 없어 씻지도 3일간 침낭에 자면서 산속마을에서도 수많은 숨바영혼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의사를 만나보려고 3-4시간씩 걸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아무리 피곤하고 시간이 늦어도 끝까지 모두 진료하면서, 또 외국인들을 만나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쫓아지는 햇볕에서도 준비해간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조명도 없는 어두운 밤이지만 온 마을주민들과 함께 야외에서 뜨거운 예배를 함께 드리며 쉬지않고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왔습니다.



3.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연합선교팀들과 함께 숨바섬 사역을 하였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사랑의교회 기드온부와 필라안디옥 청년부가 연합팀을 이루어 숨바섬 16개 산속마을과 3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예배사역, 어린이사역, 학용품후원사역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랑의교회 기드온부가 후원하여 건축된 베데스타교회 헌당식도 있었고, 아직 완공이 안되어 공사중이 자이툰교회에서는 지붕도 없고 대나무 받침대들이 있는 공사현장에서도 마을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렸고,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3개 마을은 뜨거운 햇볕속을 1-2 시간씩 걸어들어가서 그 마을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렸고, 3일간 씻지도 못하고 현지인 집에서 잠을 자면서 마을 영혼들과 함께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섬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숨바섬 산속에 있는 3개 초등학교에서 각각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을 모아놓고 예배사역을 하고 학용품 후원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학용품들은 한국 전남에 있는 5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저금통을 모아 기아대책을 통해 숨바섬 초등학생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된 것이어 더욱 가슴이 찡하였습니다. 학용품 후원이라는 명분으로 각 학교마다 모든 초등학생과 교사들이 수업을 전폐하고 모였으며, 그 중에 60%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이어 더욱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의 관심과 나눔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4. 계속 되는 숨바섬 사역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숨바섬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또한 질병과 배고픔, 가난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다시한번 절실히 느끼었습니다. 한쪽귀가 완전 썩어서 귀를 반이나 절단하여야 했던 할머니, 다리 한쪽이 완전히 한센병처럼 썩어들어간 아저씨, 손가락을 칼에 찔렸는데 그것을 2주간 그냥 끽끔 싸감고 있어 구더기들이 생긴 어린이, 발가락을 나뭇가지에 찔렸는데 맨발로 다니다가 파상풍이 생겨 온 발이 퍼렇게 퉁퉁 부은 어린이, 머리안에 물이 고이면서 점점 머리가 커지는 수두증을 앓고있는 아이, 치아에 암이 생겨 한쪽 뺨까지 구멍이 뚫려 고통가운데 있던 할머니,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 또한 현지사역자가 5년간 한번도 사역을 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다쓰러져 가는 교회를 지어놓고 자체 예배를 드리지만 메말라 갈라져버린 땅처럼 심령이 짹짹 갈라져버린 영혼들.... 먹을것이 없어 배고픔에 늘 고통받고 학교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숨바 산속마을 어린 영혼들.... 산을 넘고 넘으면 또 새로운 마을들이 있고 아직도 한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정령신앙속에 살면서 어둠의 영들에 잡혀있는 수많은 영혼들.... 질병과 배고픔과 어둠의 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더욱 가슴에 품고, 비록 숨바 산속에서의 환경이 우리를 매우 지치게 하지만, 육체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여도, 산속에 있는 한마을이라도 먼저 찾아내어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겠다고 다짐하며 주님께서 먼저 앞서 나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카르타 한센인들을 위한 의족후원사역과 한센인자녀 교육후원사역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지난 7월 15일 한센인자녀 교육후원 및 한센인유아 분유후원, 한센인빈곤자 생계후원과 기도 사역을 하고 뜻있는 분들이 후원해 주신 의족들을 전달하고, 또 한센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제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센인 빈곤자 중 우리를 너무나도 반갑게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시던 '로스미아' 할머니가 10일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정말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였어야 되었는데, 지난번 눈이 아프다고 하셔서 기도해 드린 것이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을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가슴이 정말 무

거웠습니다. 그 날은 또 '마르디아' 할머니가 심하게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집에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주님을 전하며 영접기도까지 인도하였으며, 이 분의 영접기도가 입술의 고백이 아니 진정한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병원에 입원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왔습니다. 정말 한센인 분들이 이땅에서 너무나도 고통과 멸시과 박해 속에 살고 계시지만 이 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주시어 천국소망이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지난 학기 성적표들을 받아와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랑하는 한센인 자녀 120명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직도 의족이 필요하신 분들이 약 140여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이 지속적으로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도 바랍니다.



6. 말랑 UKCW대학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이제 UKCW대학을 다시 이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임대해서 사용하던 현지학교가 사정상 더 이상 장소를 빌려주지 못하여 다시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진행하고 있던 새로운 캠퍼스는 150만불 재정이 필요한데 아직 10만불밖에 지불하지 못하였고, 지금 그쪽 재단과 협상하여 40만불만 추가 지불하면 일단 건물을 저희 UKCW 대학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화 40만불을 준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랑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기독교 종합대학이 이제 40만불을 지불하지 못하면 길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 자꾸만 현실을 움직이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보면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 자신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UKCW대학이 새로운 캠퍼스로 빨리 이전하여 이제 자체 건물에서 예배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대학교육 사역은 당장 아무런 변화나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주님의 일꾼들을 키우며 제자화 만들어 가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기에 UKCW대학이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소생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차고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2016년 8월 10일

인도네시아에서 함 춘 환, 김 성 혜 선교사 드림